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안으로 나를 들여다 보고 이웃을 자세히 보게 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 『이해인의 말』 중 일부

소란스러운 마음 달래줄 책방

고양시 1호 독립서점 ‘고메북스’

글. 사진. 김태영(고양시 소셜기자)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

그동안 사람들과 어울려 밖에서 활동하기를 즐겨 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방법은 다양하다. 요가, 명상, 독서 등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법 많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검색만 하면 훌륭한 강사들이 길잡이를 해준다. 요즘은 ‘북튜버’라고 하여 책을 소개해 주는 유튜브나 팟캐스트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내 취향과 입맛에 맞는 채널을 골라 들으면 그동안 몰랐던 세계가 열리며 일상이 한결 풍요로워진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지겨워졌다면 대형서점보다 비교적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작은 서점을 찾아가 책을 구매해 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고양시에는 매력 넘치는 동네서점과 독립서점이 구석구석 위치해 있다. 이번 호에서는 독립서점, 그중에서도 고양시 1호 독립서점 ‘고메북스’를 소개해 보려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요즘이다. 비록 몸은 멀리 있더라도 마음만은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하지만, 현실 속의 우리는 좀처럼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소란스럽기만 하다. 이러한 바뀌지 않는 상황에 한숨을 쉬고 불평하기보다는 이해인 수녀의 말처럼 자신을 들여다보고 마음속 고요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작지만 알찬 책방, ‘고메북스’

독립서점은 거대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주인이 각자의 개성을 살려 운영하는 서점이다. ‘고메북스’는 평생 책과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은 정경혜 시인이 운영하는 작지만 알찬 책방이다. 공간에 들어서면 개인이 기획-인쇄-유통까지 모두 도맡아 만든 ‘독립출판물’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다. 고메북스는 오래전부터 독립출판 워크숍을 해왔는데, 이 과정을 통해 일산의 많은 주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냈다고 한다.

기성 출판물이 어떤 기준과 틀에 맞춰 잘 다듬어진 책이라면, 독립출판물은 작가 개인의 생각과 개성이 고스란히 엿보이는 책이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의 비밀 일기를 들춰보는 듯도 하고, 생각지 못한 발견을 하는 기분이 들어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고메북스는 독립출판물 이외에도 고전 중심으로 책을 진열한다. 반짝 유행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책들보다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책을 손님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책방지기의 생각이 담겼다. 고전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힘이 있으므로 책을 전달하는 보람도 크다.

고메북스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일상생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로 모임은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메북스는 독립출판 워크숍 이외에도 독서모임, 글쓰기, 철학모임 등을 운영하며 책을 매개로 주민들과 활발히 소통해 왔다. ‘고메(Gourmet)’는 미식가, 식도락이라는 뜻이 있다. 동시에 우리말로 ‘고매’는 인격이나 품성, 학식 재질 따위가 높고 빼어나다는 뜻이다. 책방지기는 음식이 사람의 허기진 배를 채우듯 책이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채울 수 있다고 믿는다. 허기진 영혼의 배를 채울 줄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힘, 버틸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뜻을 담아 ‘책과 함께하는 삶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고메북스에 방문하면 책방지기로부터 이 시기에 꼭 맞는 멋진 책을 추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당연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잘 지키며 버텨야 한다. 더불어 책과 함께 자신을 돌본다면 이 시기를 보다 슬기롭고 무탈하게 흘러보낼 수 있을 것이다.

1.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고메북스
2. 고메북스의 산뜻한 외관
3. 작지만 알찬 내부공간
4. 고메북스의 아외 테이블

<p>고메북스</p> <p>위치 고양시 일산서구 증양로 1470 동부 썬프라자 B동 128호</p> <p>운영시간 12:00~19:00, 일요일 휴무 *변동사항은 공식 사이트에 공지</p> <p>공식 사이트 www.instagram.com/gourmetbooks</p> <p>문의 010-9248-8296</p>

